

## 여성시대, 그리고 수필가

김 가 영

(한국문인협회 회원)

〈버지니아·울프〉에 의하면 에세이는 소피스티케이트(sophisticate) 된 문서로서의 위치를 잡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에세이에는 정신의 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피스티케이트(sophostocate)의 뜻은 세파에 닿고 닿은 모양, 세련된 멋이 풍기는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지니아·울프〉가 1929년경 여류작가의 피해의식을 졸업하는 동향을 보여 주었지만 가깝게는 10년전만 해도 여성의 발언에는 피해자 의식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여성들은 독자적인 의견을 갖기 시작했다. 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여성의 지위, 사회진출에 따른 영향도 커졌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3가지 신기(神器)라고 하는 자유시간, 책, 자신만의 공간이 여성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런 요소들이 확보되면서 문학이 여성에게 있어서 택할 수 있는 가까운 예술인 것도 분명해졌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수필의 시대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수필이 사랑받고 우리 곁에서 가깝게 숨쉬고 있는 장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인 주변의 얘기를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다 세련된 수필을 손댈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한국인의 파토스(pathos·감정적·열정적 정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적인 에세이보다도 보다 정서적 수필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재는 신변잡기나 인생기록 등을 수필(픽션)이 아닌 형

식으로 쓰면 에세이라고 해되어지고, 수필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더 조용하고 차분한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다.

약간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만 수필가라는 뉴앙스는 에시스트보다 서둘러서 나이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필이라는 것은,

첫째 소설과 달리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논픽션 또는 르포르타주보다도 사적이어야 하고,

셋째 표현형식 취급하는 테마에 제한은 없지만 어떤 문제를 취급해도 그것에 대처하는 자기라는 것이 동시에 테마가 되어있어야 한다. 사고와 관찰도 일상 감각에 기준한 실물의 크기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넷째 천하의 큰일을 얘기하지 않고, 입에 발린 말도 하지 않는다.

다섯째 반드시 체험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감상은 생활자의 시점에서 얘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든 재미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재미있다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이 재미라는 얘기다.

나는 수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재미를 독자에게 안겨줘야 한가도 생각한다.

일상에서 누구든지 목격하는 광경. 어떤 인생에도 있을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어디엔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는 것이 진정한 수필가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필은 소설가의 여기(餘技) 또는 작가지망생의

연습 무대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수필가와 소설가는 그 자질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다.

소설가는 액션(action)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얘기를 만들어 낸다. 주위가 어떻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간다. 실지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작품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모아가는 작업이다.

수필가는 리액션(Reaction)의 사람이다. 자기가 액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을 반응한다.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체험해서 그것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자기대로 분석하면서 쓴다. 처음부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필가의 상상력은 주변의 풍물을 반영시키는 거울인 것이다.

현실에 준해서 사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 보고 가능하다면 자기대로 해 보는 것 외엔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수필가가 죽을 때까지 수필을 쓸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그 사람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다.

수필가는 별 재미없는 얘기라고 해도 한 줄 또는 두 줄 던져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신변잡기라고 해도 어떤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수필가이다.

에세이라는 말이 몬테뉴가 쓴 책 이름 <Les Essais>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Essais가 복수가 되어 정관사가 붙어있으니까 <에세이를 모은 것>이 된다.

불어의 에세이는 영어의 트라이(try)와 같은 <시도하다, 시험하다>의 의미의 말이다.

몬테뉴가 쓴 것은 철학적인 사색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구성된 논고가 아니고 잡다한 테마를 폭넓게 가끔 자신의 습관이나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 포함해서 발상이 닿는대로 써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혀 나가지만 결코 결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도하고 자신의 감각이나 지성을 검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필가는 살아가는 고정을 중요시하는 인생 그 자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시도해보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필가가 아닌가 한다.

만일 수필가에게 수필문학수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히 감성, 감정의 수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마음에 있으므로해서 한 줄의 써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타(自他) 어느 쪽을 향한 마음이든 상관없다.

이것만은 전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의 한줄은 크든 작든 반드시 빛나주지라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 수필가에게 있어서 문장수업이라는 것은 글을 쓰기 전의 오랜 시간들이 아닌가. 한다. 사회생활속에서의 많은 일들. 만나는 사람들. 가본 곳. 먹어본 것. 만져본 것. 사랑했던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이다.

무엇인가를 쓰다는 것의 기본은 쓰고 싶은 무엇인가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체험했던 것들 중에서.

얘기를 처음으로 들리면, 요즘은 여성시대라고 한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확고한 자아의식, 그리고 독자적인 눈, 자립정신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활약이 누부시다.

그러나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부작용이다. 후유증이다.

진정한 여성시대라는 것은 도전, 자립, 사회참여 등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까지도 포함해서 수용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여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매력적인 수필이라는 장르가 여성에게 너무도 자연

스럽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랑 결혼 출산 미움 증오 그리움 등 그 모든 감성과 감정의 현장에서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않고 시도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